

세계 미술의巨匠에게 듣는다

日출신 현대미술 작가 구사마 야요이



일본의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 구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왼쪽). 구사마 야요이(오른쪽 위)와 그의 설치 작품.



구사마 야요이 스튜디오 제공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 최고의 걸작”

일본 출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현대미술 작가 중 한 사람인 구사마 야요이(草間彌生·81)는 올해 시드니비엔날레와 일본 아이치트리엔날레 참가를 앞두고 작품 제작에 여념이 없다.

구사마는 1959년 뉴욕에서 그물망이 한없이 반복되는 ‘네트 페인팅(net painting)’을 선보인 첫 개인전을 열었고, 당시 평론가이자 미니멀리즘의 대가로 꼽히는 도널드 저드의 관심을 끌었다. 구사마는 ‘네트 페인팅’과 ‘polka dot’라고 불리는 물방울무늬를 반복시켜 ‘무한성’을 표현했다. 기존의 ‘중심’을 탈피해 유기적인 무한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는 소파에 남성 성기를 상징하는 무수한 돌출 부위를 바느질로 꿰맨 ‘소프트 스컬프처(soft sculpture·부드러운 조각)’를 선보였고, 반전(反戰)의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로 주목을 받았다. 1993년에는 베니스비엔날레에 일본 대표작가로 참가했으며 1998년 뉴욕 모마(MoMA)에서 《Love forever》전(展)을 가졌다. 2004년 도쿄 모리 미술관에서 가진 《KUSAMATRIX》전에는 52만명의 관람객이 드는 기록을 세웠다.

구사마는 1929년 일본 나가노현 마쓰모토시(市)에서 태어나 교토 시립미술학교에서 전통 일본화를 전공했다. 그러나 1957년 보수적인 가족과 가부장적인 일본 미술계를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작품 활동을 펼쳤다. 당시는 해외여행을 맘대로 할 수 있

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사마는 미국의 유명한 화가인 오키프에게 편지를 보내 도와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과감했다.

50년 넘게 미국과 일본·유럽에서 왕성한 전시를 벌이고 있는 구사마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내가 태어난 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매사가 보수적이고 자유롭지 못한 환경이었다. 당시 나는 미술작업과 시작(詩作)을 하

“호박은 어릴적 교감하던 자연 트레이드 마크인 물방울은 지구·태양·달… ‘무한성’ 상징 다른 누구보다 내 상상 민조”

면서 도쿄 등 일본 국내에서 활동했지만 세 계무대에서 크게 활약해보고 싶어 미국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했던 그는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으로 한국에 많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사마는 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도널드 저드에 대해 “저드는 뉴욕 미술계에서 최첨단을 달리던 선구자 중 한 사람이었다”면서 “나의 창조적인 작품을 높이 평가해주고 국

제 미술계에 나를 추천해 주었다”고 말했다. 구사마는 “뉴욕에서 백남준과 친하게 지냈으며 예술가로서 그를 매우 존경한다”며 “그를 통해 한국 예술가들의 우수성을 알게 됐고, 백남준의 빛나는 철학이 세계 예술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가는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것에 대해 “인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테라나 빈곤·핵이 없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창조력이 있는 한 힘껏 싸우겠다”고 말했다.

구사마는 어린 시절 물방울무늬가 자신의 몸과 방안 전체로 뒤덮이는 환상을 본 뒤로 이를 작품에 반영했다. 작가는 “내 트레이드 마크의 하나가 된 물방울은 지구, 태양, 달, 우리 모두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호박은 어렸을 때 교감하던 자연을 상징, 작가의 분신(分身)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작가는 “호박을 좋아하는데 재미있게 생긴 모양새도 좋아한다”면서 “크고 붉은 호박과 노란 호박을 가가와현의 나오히메 해안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관광의 메카가 되었다”고 소개했다.

구사마는 “나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 신비롭고 독창적인 내 상상에 의지한다”면서 “내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행위와 발전이 내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작품이자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정미 기자 jmsn@chosun.com

미술 소식

■한·러경제협력연구원은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두 나라 작가 80명이 참여하는 《제1회 한·러 국제미술교류전》을 러시아 모스크바 중앙화가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 작가 50명이 1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는데, 국내 중견작가 10명 외에 40명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러시아 작가는 30명이 참가해 5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www.artchorus.com

■오명희 수원대 동양학과 교수의 개인전 《삶의 작은 찬가》가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전통적인 화조화(花鳥畵)를 유지하면서 대담하게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캔버스 위에 유채(油彩)와 자개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와 기억 속의 과거를 함께 보여 준다. (02)724-6328

오명희의 〈삶의 작은 찬가〉.



스승은 담백, 제자는 파격 사제간의 ‘도에 열전’

원경환·이현정 전시회

홍익대 도예과 스승과 제자 사이인 원경환과 이현정은 지난 11일부터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이화익갤러리에서 전시장 1층과 2층을 나눠 전시를 열고 있다.

전시장 2층에 자리 잡은 스승 원경환은 《잡기(雜記)》라는 전시 제목을 붙였다. 이전에 주로 검은빛이 도는 도예작품을 선보였던 원경환은 이번에는 흙과 나무·철 같은 이질적인 재료를 섞어 감각적인 오브제를 만들어냈다. 골동품 가게에서 발견한 담배통과 고가(古家)에서 찾아낸 문짝 등을 이용해 간결하면서도 은은한 향(香)이 배어 있는 오브제를 만들었다. 아내가 쓰던 화장대를 개조해 만든 작품은 은밀하고 개인적인 공간인 서랍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작품들은 검게 탄 숯처럼 보이는 나무와 녹슨 철, 검은 흙이 어우러져 미니멀리즘 분위기를 자아낸다. 깔끔하게 마무리된 철 받침대 위에 올려진 오브제들은 담백한 맛을 낸다. 작가가 ‘자화상’이라 부르는 작품 〈잡기 1011〉은 액자를 꺾어지게 만들어 액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틀었다.

제자 이현정은 작년 바젤에서 열렸던 디자인 페어에서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가 그의 작품을 구입하면서 유명해졌다. 이현정은 “페어에서 작품을 구입한 브래드 피트가 콘크리트로 짓는 집에 놓을 벤치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현정은 《闊·用(간·용)》이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에서 오브제와 도예작품을 함께 내놓았다. 달항아리 같은 전통적인 도자기 작품과



원경환의 〈잡기(雜記) 1012〉. 이화익갤러리 제공



이현정의 〈스틀과 새〉.

함께 설치작품이 같이 전시되고 있다. 최근 건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이현정은 “다양한 곳을 여행하듯이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자유롭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장작 가마에서 너무 온도가 높아져 반쯤 허물어진 그릇도 나왔고, 흙이 아닌 콘크리트로 만든 작품도 나왔다. 콘크리트로 만든 작품은 생경함보다 신선한 느낌을 준다.

두 작가 모두 이번 전시에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며 만족해했다. 전시는 24일까지 열린다. (02)730-7817 손정미 기자

빛으로 그린 그림 ‘포토제닉 드로잉’

사진가 구성수 개인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박여숙화랑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가 구성수의 개인전 《포토제닉 드로잉》(Photogenic Drawing)에서는 작가의 달라진 작품을 볼 수 있다.

구성수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정제성 없는 서구문화를 보여준 ‘매지컬 리얼리티(Magical Reality)’ 시리즈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시리즈를 통해 서구의 다양한 이미지를 믹서기에 갈아버린 듯 마구잡이로 혼용해 쓰는 우리 문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포토제닉 드로잉’ 전시는 붓이나 연필이 아니라 빛을 이용해 그린 이미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성수는 “예술로서의 사진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카메라가 빛내내는 기계적 이미지가 아니라 빛으로 그린 그림을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포토제닉 드로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의 주(主)가 되는 ‘식물 시리즈’는 작가의 고민을 담은 작품들로, 회화와 사진·조각 과정이 담겨 있다.



구성수의 ‘식물 시리즈’. 박여숙화랑 제공

우선 참출애 식물들 유리판으로 눌러 음각(陰刻)을 만든 뒤 그 위에 흰색의 시멘트를 부어 굳혀 양각(陽刻)을 만들었다. 그 위에 작가가 직접 식물의 색을 칠한 뒤 이를 다시 사진으로 찍었다. 언뜻 보기엔 책갈피에 끼우는 압화(壓花) 같다. 작가는 “식물 시리즈에 등장시킨 식물의 종류도 ‘향기별꽃’ 같은 토종 야생화를 구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식물 시리즈’가 중심을 이루지만 구성수의 ‘매지컬 리얼리티’ 작품 경향을 볼 수 있는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전시는 23일까지 열린다. (02)549-7575 손정미 기자

동아시아硏 연속강좌 ‘역사 속의 젊은 그들’



박규수

유길준

하영선 서울대 교수 강의

국제정치학자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가 지난 3일 시작한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중) 연속강좌 ‘역사 속의 젊은 그들’(총 8회, 매주 월·수 오후 6시)이 대학생과 일반인들의 열띤 수강 열기 속에 이어지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조선일보 후원으로 지난 10일과 15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좌 주제는 19세기 후반 ‘개화(開化)’를 고민했던 대표적 인물인 박규수와 유길준이었다. 하 교수가 직접 정리한 강좌 요지를 소개한다.

● 박규수의 사랑방

1870년대 중반 지금의 헌법재판소 자리에 있던 박규수의 사랑방은 20대 전후의 ‘젊은 그들’로 불렸다. 10년 후 갑신정변의 ‘4인방’이 되는 김옥균·홍영식·서광범·박영효의 모습도 보였고 20년 후 갑오개혁의 핵심인물인 유길준도 있었다. 고종의 측근으로서 우의정까지 지낸 한재(韓齋) 박규수(朴珪壽·1807~1877)가 멀지 않은 죽음을 앞두고 ‘젊은 그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박규수는 혼탁한 세도정치 속에서 40세가 넘어 뒤늦게 정치무대에 섰다. 북학파의 대부 박지원의 손자인 그는 전통적인 천하질서와 전혀 다른 신(新)국제질서를 맞이해서 고민했다. 더 이상 서양세력을 사람이 아닌 금수(禽獸)로 취급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소(小)중화를 자부하는 조선이 서양을 새로운 문명표준으로 받아들이기 수도 없었다. 박규수는 돌파구를 아편전쟁 후 같은 고

민을 하는 청나라 웨이위안(魏源)의 ‘해방론(海防論)’에서 찾았다. 서양 국가와 일본이 수호조약을 맺자고 하면 조약을 맺고 무력으로 공격해 오면 힘의 우위에 따라 방어적으로 싸우면서 서양의 장기들을 배워서 힘을 길러 물리친다는 것이다. 이는 서양세력을 현실적 주인공으로 인정했지만 주권의 자리는 양보하지 않는 논리였다. 그는 이 원칙에 따라 평안감사로서 공격적인 체너럴 셔먼호 사건을 방어적으로 처리했고, 국내정치의 갈등 속에서 난관에 빠진 한일수호조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박규수는 초조했다. 신국제질서의 파고는 역사의 지각생인 조선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방에서 ‘19세기 386’들에게 박지원의 《연암집》과 청의 ‘해방론’을 가르쳤다. 그러나 닥쳐오는 파도는 훨씬 빨랐다. 부국강병과 세력균형을 모르는 주인공은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었다. 서양세력을 주연으로 받아들이려 했다. 박규수의 사랑방도 거대한 파도 앞의

박규수의 사랑방에 모여 新세계질서를 논한 그들…

“서양을 주인공으로 인정하되 주연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

난관에 부딪혔다. 박규수가 세상을 떠난 후 ‘젊은 그들’은 새로운 문명표준을 배우려 해외의 사랑방을 찾아 나서야 했다.

● 유길준의 3중 어려움

구당(矩堂) 유길준(兪吉濬·1856~1914)은 열여덟이던 1873년에 박규수와 운명적으로 만났다. 박규수는 변화하는 세계를 제대로 헤쳐나가려면 서양을 알기 위해 웨이위안(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를 공부하라고 격려했다. 유길준은 과거(科擧)를 포기

하고 새 공부를 시작했다. 일본과 미국 유학 3년을 거치면서 유길준은 해방론(海防論)과 만국공법론(萬國公法論)을 넘어서서 서양을 새로운 문명표준으로 받아들여 한국 최초의 근대문명론인 《서유견문》을 집필한다. 서유견문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서양사정》《학문의 권유》《문명론지개략(文明論之概略)》의 3부작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다. 유길준의 조선문명론은 후쿠자와의 문명론보다 3중으로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전통 천하질서의 변방에 있던 일본과 달리 소중화를 자처했던 조선이 금수로 여기던 서양을 새 문명표준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전통의 강력한 저항으로 일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다. 유길준은 조심스럽게 한국형 문명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국제화도, 자주화도 아니었다. 19세기형 한국적 국제화의 고민이 배어 있었다.

1880년대 한국은 전통적 특수관계의 유지를 강요하는 중국과 근대적 국제관계를

요구하는 일본 및 구미(歐美)열강 사이에서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유길준은 19세기 조선의 복합 외교 전략인 ‘양절체제론’(兩截體制論)을 제시한다. 중국과 전통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일본 및 서양 국가들과도 평등한 근대 국제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복합 그물망 외교의 출발이었다.

유길준은 전통적인 군주제로 19세기 서세동漸(西勢東漸)의 험한 파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갑신정변의 실패 후 서양 민주제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해답을 군민공치(君民共治)에서 찾았다. 민주화의 조심스러운 출발이었다.

그러나 유길준의 3중 복합의 꿈은 전통과 근대의 갈등, 국제 세력균형의 활용 실패, 국내 정치여력의 미흡이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다. 한국은 국망(國亡)의 아픈 역사를 맞이하면서 국흥(國興)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해야 했다.